

2024.9.25.
제8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인사 말씀

2024. 9. 25. (수) 16:00
마포프론트원 컨퍼런스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 소 영

I.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매 분기마다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
참석해주시는 각 부처 실·국장님들과
정책금융기관 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산업별 업황이 차별화되고
이에 따른 자금수요가 다양해지면서
정책금융에 대한 수요도 보다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대통령께서
반도체에 대해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하여
26조원 규모의 지원방안을 논의하였고
이에 따라 정책금융도
18.1조원 규모의 반도체 분야 중점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범부처 차원의 국가전략산업 TF에서는
주요 산업별 육성전략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우리 협의회에서 결정한
산업별 정책금융지원방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각 부처별 정책과제를 통해
산업·분야별 정책금융 공급액이 활용*되는만큼
내년도 산업별 정책금융 공급계획을
결정하는 과정은 점차 중요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예: ① 12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정책금융지원 확대방안은 '국가전략기술 기본계획' 내 포함(24.8월)
② 국가첨단위는 첨단산업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에 '24년중 14.7조원을 공급키로 함(23.12월)

지난 2년간 정책금융이 부처의 핵심사업, 필요 산업에 집중배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셨는데 내년에도 정책금융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II. 금일 정책금융협의회 주요 논의내용

오늘 회의의 안건은 크게 세 가지이고, 세 가지 모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 기술보증기금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참여

첫째,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에 더해 기술보증기금도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 참여합니다.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지난 1989년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은 담보는 부족하지만 미래성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기관입니다.

'24년도에는 총 28.5조원의 기술보증을 공급할 계획으로 이 중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선정 5대 분야에는 총 13.6조원의 자금이 집중 공급되고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의 참여에 따라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정책금융기관의 '24년 총 공급액은 212조원에서 240조원으로 확대되었고 5대 중점분야에도 (기존 102조원에서) 116조원의 자금이 집중 공급되게 되었습니다.

< 4개 기관 `24년 정책금융 총공급계획 >

※ 3개 기관 합계 **212조원** (산은 77조원, 기은 74조원, 신보 61조원) +
기술보증기금 28.5조원 = 4개기관 합계 **총 240.5조원**

< 5대분야 `24년 정책금융공급계획 >

구분	지원목표	기존 3개기관	기보 공급계획	4개기관 합계
① 글로벌 초격차 산업 육성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 초강대국 지위 달성 지원	17.6조원	1.3조원	18.9조원
② 미래유망산업 지원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은 미래신산업의 성장·경쟁력강화	22.1조원	8.8조원	30.9조원
③ 기존산업사업재편 산업구조고도화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하여 기존 주력산업의 체질개선 지원	21.3조원	3.0조원	24.3조원
④ 유니콘 벤처중견 육성	성장잠재력 높은 벤처 및 중소기업의 글로벌기업 도약	12.6조원	0.2조원	12.8조원
⑤ 기업경영애로 해소	3高 현상, 경기전망 둔화 등에 따른 기업 경영애로 해소 지원	28.7조원	0.3조원	29.0조원
합 계		102.4조원	13.6조원	116.0조원

기술보증기금의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참여에 협조해주신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늘어난 규모만큼이나 주요 산업별로 중복없이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각 기관과 부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25년 정책금융 부처별 수요조사 계획

둘째, 내년도 정책금융 공급계획을 만들기 위해 각 부처의 주요사업과 산업별 동향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정책금융은 전반적으로 필요한 산업에 집중 공급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되나,

코로나 19를 거치면서 규모가 급증하고 민간과 중첩된다는 비판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책금융이 규모확대에 치중하기보다는
민간과 중첩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산업·분야에
보다 내실있게 공급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총량 공급 증가는 최소화하되,
부처별 산업정책을 반영한 5대 중점분야에 집중공급하고,
단순 대출 외에 투자도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각 부처는 연말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5대 중점분야 및 세부 산업부문에 대한
자금공급계획이 효과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중점추진사업과
산업현장의 현안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다음 정책금융지원협의회까지
부처별 현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실무협의를 거쳐
정책금융의 총 공급규모와
중점분야에 대한 배분 규모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3. 재정모펀드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 발표

셋째로, 지난 3월 제6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후속조치로서
재정투입펀드인 성장지원펀드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를 공유드립니다.

성장지원펀드는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성장 벤처기업과
회수단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을 투입하여 8조원 규모로 조성한 최초의 재정모펀드입니다.

2019년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시작되어 2023년까지
약 1,100개 기업(중복 포함 1,899건)에 최종 투자가 이뤄져
기업의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신용정보원과 금융연구원의 분석결과

분석대상기간 중 투자 후 기간('22~'23년)이
코로나 19를 겪은 직후여서 전반적 기업의 성과가
이전에 비해 좋지 않았지만,

성장지원펀드의 투자를 받은 기업이
투자를 받지 않은 일반기업에 비해서
매출과 자산의 높은 성장성을 보였습니다.

기업 규모확대에 성장지원펀드의 우선 목표가 있었던만큼
1차적인 목표는 달성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수혜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과 이자보상배율은
투자 전 대비, 일반기업 대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산과 매출규모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투자가 늘어나고, 당장의 수익성이 낮아지는 것은
일반적인 기업의 성장단계로 판단할 수도 있겠으나,
더 긴 기간 추적관찰하면서 이러한 지표도 개선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금번 분석결과를 기초로 재정모펀드에 대한
성과분석 방법론을 고도화하고,
투입(Input) 대비 효과성(Output)이 좋은
산업분야·기업규모·투자방식·시점에 맞추어
정책금융을 공급하는 데까지 발전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III. 맺음말

정부재정여건이 녹록치 않은 환경에서
정책금융의 역할은 점차 중요해지고,
이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정책금융 공급이 질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금융담당 부처인 금융위와
산업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산업담당부처 간 긴밀한 소통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사업부처의 주요 정책과제와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해주시고
정책금융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조언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